

요약

서울시민 2021년 1/4분기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1/4분기 89.0으로 전 분기 대비 0.4p 하락하며, 3분기 연속 이어오던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2.9p 하락한 72.9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2.1p 상승한 96.0을 기록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98.0으로 전 분기 대비 2.0p 올랐으며,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보다 0.5p 상승한 85.6을 기록했다.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의류비'와 '교통·통신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 분기보다 상승했다. 그중 '식료품비'가 100.0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비'는 전 분기에 견줘 2.8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민 1/4 “보복소비 경험” … 주요 분야는 음식·전자기기

코로나19에 따른 보복소비 경험에 대해 서울시민 4명 중 1명은 '경험이 있다' (24.3%)고 응답하였다. 보복소비를 처음 했던 시기로 '2020년 4분기'(30.2%)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보복소비 분야(1순위 기준)는 '음식(건강식품, 식·음료)' (44.0%), '전자기기'(20.3%), '명품패션/잡화'(13.1%) 순으로 조사되었다. 보복소비 무경험자의 10.1%가 앞으로 '보복소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소비 분야는 '국내외 여행'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보복소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우울해진 마음에 대한 보상 심리'가 36.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보복소비에 따른 영향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긍정적'(41.6%)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가계 경제에는 '부정적'(50.9%)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는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2월 「체감경기 BSI」는 42.8로 지난해 11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2월 이후 90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전망경기 BSI」는 2021년 2월 60.6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3월 76.8로 상승 전환했지만 전년 동월보다 17.4p 낮았다. 서울지역 전통시장 「체감경기 BSI」는 38.2로 지난해 11월 대비 34.4p 하락하였고, 1월 「체감경기 BSI」는 35.4로 최근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통시장 「전망경기 BSI」는 3월 71.9로 전월에 최저치(59.4)를 기록한 후 12.5p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큰 폭(22.0p)으로 하락했다.

“당장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지역이 조금씩 변하는 것 느껴”

민생현장 인터뷰 결과, 대상지 4곳 모두 같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었지만 각각 차이를 보였다. 서울역 일대는 2020년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종료된 곳이다. 사업 대상지였던 청파동, 만리동, 서계동 등은 낙후 정도가 심각했지만 ‘서울로 7017’ 개통 이후 보행량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고, 사업의 하나로 설치된 앵커시설은 주민편의 증진과 수익창출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다. 즉, 지역산업인 봉제산업을 위해 코워킹팩토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봉제산업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했고, 서울시 의상학과 학생들과 협업하여 지역 패션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서울시에 게는 지역적 특성을 잘 파악해서 현장에 맞는 운영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거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동·상계 일대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등 4개 자치구가 함께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창동·상계 일대는 현재 특화된 지역산업이 없고, 문화소외지역이어서 문화자원 연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반 인프라와 협업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부족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역량 있는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서울시와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창동·상계 일대가 문화소외지역만큼 문화예술 산업 육성을 위해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영등포·경인로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후 기계금속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문래 1~4가에는 1,300여 개의 기계금속 업체가 있고,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10~20개 이상의 업체가 협업하는 등 하나의 공장을 이루고 있었다. 문래동의 기계금속 소공인들은 85%가 1인 업체고, 업력은 최소 25~40년 정도 되어 기술력은 최고지만, 5~6차 벤더가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소공인협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일감 창출(대기업과의 협업 사업)과 시민 자산화(‘내 공장 갖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정부 및 서울시에게는 문래동 기계금속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와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공동작업장 구축, 도면화를 위한 장비 마련, 인증 기관 설치 등)을 요청하였다.

홍릉 일대는 ‘글로벌바이오 산업혁명의 심장’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R&D 혁신 인프라 구축, R&D 맞춤형 다양한 생활환경 조성, 역사·자연 및 지역이 소통하는 공간창출을 목표로 2020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앞으로 홍릉 일대가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었다. 그 밖에도 서울바이오허브 내 입주기업의 계약 기간 연장과 교통이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 지역사회-기관-바이오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소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